

석유화학 수출과 환율

원화 가치 상승이 석유화학제품 수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 수출이 크게 줄어들거나 수출수익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거나 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직전원료는 나프타이고 나프타의 원료는 원유이며, 또 나프타를 투입해 에틸렌·프로필렌·BTX을 비롯한 기초유분을 생산한 후 합성수지·합섬원료·합성고무를 제조하나 3대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 수출입 계산에서 환율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수입시점이나 수출시점 차이에 따른 환율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입할 때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고 수출할 때는 1100원이었다면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변동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반대이면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손익이 어떠하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기의 수출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원화환율이 떨어지면(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곳은 기계업종이 87.0%로 가장 높았고 섬유·의류 85.7%, IT·반도체 83.9%로 80%가 넘었고 전기·전자도 77.3%에 달해 평균 69.2%보다 높았다고 한다.

반면, 원화환율 하락으로 수입 원자재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식·음료(45.7%)와 정유·석유화학(52.3%), 철강·금속(60.4%)은 환율이 수출에 부정적이라는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낮거나 국내 가공 코스트가 높은 업종은 원화가치 상승이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원료 코스트와 생산제품 수출가격에 환율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화환율 변동이 항시적으로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어 업종에 상관없이 환율변동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의 조사에서도 수출에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최소 원/달러 환율에 대해 1190원 이상(16.2%)과 1160-1190원(8.0%) 응답이 전체의 24.2%에 그친 반면, 1130-1160원(21.4%), 1100-1130원(37.2%), 1100원 미만(17.2%) 등으로 대부분이 1100원 수준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상의는 원화환율이 10월15일 기준 1155원으로 설문조사 대상 수출기업의 25% 가까이가 원화환율 하락으로 수출 마진을 남기지 못하고 1100원 아래로 떨어지면 80% 이상이 수출마진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역시 기우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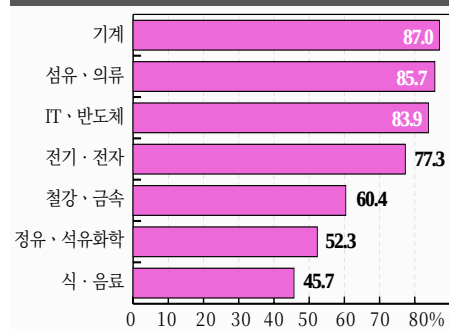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전기·전자, 섬유 수출이 줄어들거나 수익을 올리지 못해도 식품이나 석유화학, 정유, 철강·금속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 IT·반도체, 전기·전자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100대기업들은 원화환율이 10원 하락하면 매출액이 평균 300억-400억원 감소한다고 답했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라는 점 강조해주고 싶다.

원화가치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업살을 떨 것이 아니라 대응책 마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원화가치 상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율



<화학저널 2009/10/26>